



태산처럼 우뚝한 ‘섬것들’의 투쟁사

제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2

글 · 사진 | 김기선 ningirsu@naver.com

시월의 마지막 밤

1983년, 전두환 정권이 미국 벡텔사의 자본을 끌어들여 제주 화순항을 국제자유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언더’에서 한껏 몸을 낮추고 근력을 키워 온 제주지역 학생운동권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제주개발이라는 지역 내의 예민한 사안을 선도적인 이슈로 내세워 반독재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흩어져 있던 비공개 소그룹 성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수놓음도 새로운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제주대학교에는 투쟁을 예고하는 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월의 마지막 밤’. 1983년 이지훈 등과 함께 자유항반대투쟁을 주도했던 이재홍(제주의 소리 편집국장)은 오랜 고립과 분산, 침묵의 껍질을 깨고 제주대 최초의 비합법 투쟁을 벌였던 그날을 그렇게 불렀다.

“당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주 개발에 관한 문제였어요. 중문관광단지로 대표됩니다마는 70~80년대 들어 제주에 대한 땅투기가 무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땅은 생명인데, 돈 몇 푼 받고 우리의 삶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었거든요. 우리 삼촌이었고, 이건 결국 자본의 문제, 체제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제주에 자유무역을 만들려는 것도 결국은 제주를 세계시장에 내놓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문제가 아주 주요한 이슈였었죠.”

◀ 87년 6월항쟁이후, 제주 민주화운동사의 광양시대를 열었던 옛 국민운동본부 건물

10월 30일 수놓음의 '태슨땡' 공연으로 점화된 시월투쟁은 다음날인 10월 31일 제주대 본관 앞의 집회투쟁으로 이어졌다. 본래 이날은 가두시위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4인의 주동자 중 하나가 사전에 연행되고, 학내 싸움을 주도한 이지훈이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와 학교 당국의 거센 탄압과 희생을 불러오긴 했지만, 자유항반대투쟁은 제주지역 학생운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제주지역 청년·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향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일견 '외지 자본의 유입에 대한 반발로서 일으킨 경제투쟁으로 보이지만 1980년대 초반 비합법 탄압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마당극을 통한 공감대 형성, 학내에서의 서클 활동, 외곽의 조직 등이 어우러져 일어나 반독재 목적의식을 뚜렷이 한 운동'이었다.(박찬식, '제주지역의 6월항쟁', 『6월항쟁을 기록하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자유항반대투쟁이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노선투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른바 정치투쟁론의 대두였다.

광주여, 4·30여

정치투쟁론의 근거에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광주가 있었다. 광주로 하여, 80년대는 '정치투쟁의 시대' 일 수밖에 없었다. 광주의 살육은 제주지역 젊은이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동시대에 뿌려진 광주의 피는 그들의 가계에 얼룩진 항쟁의 기억, 망각을 강요했던 끔찍한 기억들을 되살려 놓고야 말았으며, 전두환 정권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정치투쟁으로 이끌고 나아갔다.

1980년 전남대에 입학해 광주항쟁을 경험한 뒤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합류했던 진희중(친환경학교급식제주연대 고문)은 이렇게 말했다.

"87년 이전까지 제주에서 일반인들의 사회민주화운동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워낙 피해의식이 강해가지고 전두환 타도투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학생운동이 유일했다고 봐야죠. 80년대 중반부터 학생들이 구속이나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명확하게 투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5·18이 대학생들에게 공분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지역의 역사도 깨우치게 되고, 「순이삼촌」이라든지 김봉현의 『혈(血)의 역사』, 존 메릴의 소논문 「제주반란」 같은 것들을 몰래 돌려보면서 4·3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18이 4·3 부활의 씨앗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4·3이 5·18을 낳았고, 5·18이 4·3의 씨앗이다..."

1983년 겨울, 12·12 쿠데타와 광주민중 학살로 권력을 거머쥔 전두환군사정권은 자기 손에 묻은 피를 씻고 학생들의 반정부시위 열기도 가라앉힐 겸 이른바 '유화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84년, 대학가에 불기 시작한 학원자율화의 바람이 제주에도 상륙했다. 당시 서울대에는 MC그룹이라 해서 '학원자율화투쟁을 통해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학생운동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 시대적 변화의 반영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학원자율화운동 이후 제주대 운동지형이 큰 변화를 맞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당시 제주대학교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지낸 오만식(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의 말이다.

"84년 하반기부터 탐라민속문화연구회가 학내에서 다시 마당극을 하기 시작하고, 탈춤반이라든가 학내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자율화 추진 운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학생운동권이 총학생회에 개입해서 총학생회가 부활하게 됩니다. 85년도부터 본격적인 정치투쟁으로 바뀝니다.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 처단하라.' 이런 식으로 구호가 바뀝니다. 85년 하반기부터는 학내 조직이 기존의 수공업적인 조직이 아니라 각 팀의 수장들이 모이는 중앙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 1년 사이에 제주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시위다발 대학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86년도부터는 전면화 되죠. 민정당사 습격하고, 맨날 싸움하고."

2007년, 미디어제주가 발행한 제주민주화운동사 『타는 목마름으로』는 1985년 2

제주 남문로타리



월의 광양초등학교 유세장 시위를 제주지역 반정부 정치투쟁의 첫 신호탄으로 꼽고 있다. 졸업을 앞둔 제주대학교 4학년 여학생 세 명이 제12대 총선후보자합동연설회가 열리는 유세장에서 '반 민정당, 독재 타도' 유인물을 뿌리며 반짝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시위에 나섰던 오옥만(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은 투쟁을 결단했던 당시의 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뭔가 촉발제가 필요하다, 몇 년 감옥에서 살더라도 그런 자기결단적인 사회정치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주도가 정치투쟁 경험이 없고, 학내 소그룹적인 모임에서 논의는 무성했지만 한번도 싸움의 형태로 분출된 적이 없었거든요. 사전에 전체논의가 있었는데, 반반이었어요. ‘아직 이르다. 조직적인 투쟁으로 그 메아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지금처럼 가자.’는 입장과 ‘지금 시점에서 뭔가 화두를 던져야 된다.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이 있었죠. 어쨌든 이후 후배들의 5·18투쟁으로 연결되는 교량 역할은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주 중앙로



한라산과 기생화산 368개가 동시에 폭발하듯

87년 6월,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마침내 제주도에 옮겨 붙었을 때 육지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주억댔다. 6월에 타오르지 않는 곳이라면 ‘대~한민국’도 아니라는 듯이. 처음에 그 불길은 초라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된 후 반정부투쟁의 열기가 들불처럼 번져 가고 있었지만, 제주지역에는 대중투쟁을 이끌어 갈 만한 사회운동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주에 6월항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것은 제주대학교의 기말고사거부투쟁이 시작된 6월 21일부터였다. 가두로 쏟아져나온 학생들은 중앙로로, 남문로터리로 몰려들었다. 시내 곳곳에서 즉석 시국토론회가 벌어졌다. 중앙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열을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시선에는 묘한 갈등이 숨어 있었다. 반란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명백하게 지켜본 이들, 야당이나 여당 대신 무소속을 선택하



제주 동문시장앞 현대약국사거리

는 비애를 안고 살았던 이들이 ‘내상(內傷)’을 무릅쓴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되는 싸움’이라는 분명한 믿음 외에도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이 투쟁이 저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 내 가족의 일이며, 잘난 육지것들이 아니라 섬것들, 변방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는 깊은 공감이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들 해요. 제주도 운동의 향토색이랄까, 지방색이랄까... 이슈 끌어내릴 때도 보면 4·3 같은 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육지부가 제주도를 무시한다 이런 거를 감정적으로 건드리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조선시대 여기 파견된 관료들이 횡포와 약탈을 저지르고 한몫 챙겨서 떠나고 이런 오랜 수탈의 역사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린 어른들한테 ‘에이, 저 육지것들’, ‘육지놈들’ 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는 일반적인 한국사회가 갖는 모순과 함께 몰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의식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오옥만)

제주의 6월투쟁을 시민·학생이 함께 하는 진정한 ‘항쟁’으로 변모시킨 것은 박종철도 이한열도 아니었다. 7월 11일 동문시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벽돌에 눈을 다친 김윤삼이라는 여대생이었다.

“제주사회가 분노했죠. 잡혀가서 조사받고 이런 건 있었지만, 제주에서 시위로 인한 폭력은 처음이었거든요. 광양로타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경찰방어벽을 우리 힘으로 뚫었어요. 제주시청 앞 민정당 당사로 몰려가 담당자 처벌과 공



87년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가 있던 건물 입구

개사과를 요구했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깐 ‘안 되겠다. 점거농성으로 이것을 대중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이지훈, 진희중, 저, 오옥만, 정공철 몇 명이 저녁에 중앙성당 옥상에 올라간 거죠.”(이재홍)

결국 경찰의 사과로 마무리된 김운삼 사건은 학생 중심의 제주 민주화운동에 사회 각 부문인사들이 동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제주도 최초의 사회인사를 중심으로 한 단체 ‘폭력추방을 위한 애

국도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지훈)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8월 23일에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가 출범하였고, 9월 6일엔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이하 제주국본)가 결성되었다. 제주국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운동단체의 연합체나 회의체 정도의 성격을 가진 타지역 국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주국본은 각 부문운동과 부문단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산실이었던 거예요. 아마 46년 건국준비위원회 이래 정파와 정당·사회단체·종교·연령·지역을 초월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망라됐을 겁니다. 읍·면·리 단위까지 제주도의 진보적인 사람들 천 명이 참석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입니다. 제 아버지, 할아버지, 형님을 4·3 때 잃었던 사람들이 ‘빚진 마음’으로 국본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다 지역운동·농민운동 등 부문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한라산이 폭발하고 368개의 기생화산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말이죠. 제주국본이 88년의 송악산 군사기지반대투쟁 등 민중생존권투쟁을 담당하고, 89년 4·3 41주기를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토양 위에서 가능했던 겁니다.”(오만식)

그들의 삶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주도의 운동이 어째서 수십 년간이나 단절될 수밖에 없었으며, 또 어찌 이리도 빨리 복원되어 가장 전투적이면서도 제주도다운 색깔을 갖출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 답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나

는 여전히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고립단절된 섬에서 무장투쟁을 했던 그들의 경험과 섬 특유의 강고함,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들의 역사를 헤아릴 뿐이다.

이제 목숨을 걸지 않고 ‘우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숫자가 백 가지도 넘는 세상이다. 80~90년대 뜨거운 정치투쟁의 격랑을 헤쳐 온 제주도 운동도 ‘가장 지역적이면서 가장 정치적인 시대’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바라건대, 제주도 운동이 육지의 운동을 닮아 가지만 말고 변방의 수성(戍性)을 지켜냈으면 좋겠다. 무정부주의 공화국이라도 만들어서, 더 이상 달리지 않는 따뜻미지근한 운동가들을 한 방 먹였으면 좋겠다.

고침 : 희망세상 11월호 9쪽의 '이정훈 목사'를 '이중헌 목사'로 바로잡습니다.

글 김기선 | 1965년 서울 출생. 평전 작가. 저서로는 『저는 열네 살 선영이에요』, 『전태일』, 『김진수』, 『최종길』,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이 있다.